

# 최고의 경영 가치는 '삼 형제의 우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란 표현이 있다. 두 가지 의견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는 '사촌이 땅을 산 것에 대한 시샘에서 나오는 속 쓰림', 또 다른 하나는 '땅을 산 사촌이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마련한 잔치 상에서 나오는 포식 후유증'이 그것이다.

20년 가까이 인쇄업을 경영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는 한영문화사 홍사룡(57)사장과 영신사 홍사회(55)사장 그리고 천일문화사 홍사원(52)사장 삼형제라면 사촌이 땅을 산 이후의 복통은 아마도 후자가 맞을 것이다.

지난 12월 5일 계본소를 운영하던 둘째 홍사회 사장이 인쇄기를 구입하고 인쇄분야까지 영업 영역을 넓히면서 서로에게 불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지만 삼형제간의 우애로 불편할 뻔한 관계는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됐다.

막내 동생인 천일문화사 홍사원 사장은 개업한지 얼마 안된 형을 위해 많지 않은 물량에도 불구하고 둘째 홍사회 사장에게 일정 부분을 맡겨줬고, 만이인 홍사룡 사장도 동생 회사의 직원들의 교육을 도맡아 처리했다.

자칫 서로에게 경쟁 관계로 자리 매김

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를 삼형제는 각별한 우애로 풀어나갔다.

## 삼형제 보유 인쇄기 12대, 근로자도 130명

3개의 회사로 분리되어 있는 삼형제의 회사를 합쳐보면 꽤나 규모 있는 회사가 된다. 보유한 인쇄기만 해도 한영문화사가 6대 영신사와 천일문화사가 공히 3대 등 총 12대에 이르고, 종업원수도 한영문화사가 35~40명, 영신사가 65~70명, 천일문화사가 20명 정도로 120~130명 정도가 삼형제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삼형제들의 이 같은 발전은 독립 경영이 가져온 시너지 효과의 결과이다.

삼형제의 인쇄업과의 인연은 1966년으로 올라간다. 검인정교과서에 근무하던 삼형제의 부친인 홍광유(82)옹이 1966년 종로구 신문로에 영풍인쇄사를 차린 것이다. 삼형제가 나란히 인쇄업체를 경영하게 된 데는 그런 아버지 홍광유옹의 영향이 컸다.

가장 먼저 인쇄업에 뛰어들었던 것은 둘째인 영신사 홍사회사장. 연세대학교 67학번인 홍사회 사장은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은 때에 직장생활을 하던 만이들을

대신해 76년 아버지 홍광유 사장이 운영하던 광덕문화사에 입사하면서 삼형제 가운데 처음으로 인쇄업에 뛰어들었다.

둘째 아들의 선택에 이어 셋째 홍사원 사장이 어머니의 권고로 81년 인쇄업에 투신했고, 84년 첫째인 홍사룡 사장이

한영문화사 홍사룡 사장



영신사 홍사회 사장



천일문화사 홍사원 사장





광덕문화사에 입사했다.

홍사룡 사장이 가세했지만 83년 둘째 홍사회 사장이 부도난 영신사를 인수, 독립했기 때문에 삼형제가 함께 근무하진 못했다.

84년 입사한 홍사룡 사장이 가장 먼저 단행한 조치는 활판 시스템을 오프셋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초창기 2색 양면기 도입으로 오프셋 인쇄 시스템을 도입한 홍사룡 사장은 이후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4색 양면기를 도입하고 출력 시스템, 디자인 시스템을 갖추는 등 회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88년 상호 명을 광덕문화사에서 지금의 한영문화사로 바꾸는 등 무리 없이 잘 운영되던 회사는 89년 두 가지 일을 겪게 된다.

홍사룡 사장이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공장이 상암동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홍사룡 사장의 구속은 일면 예견된 것이었다. 구속 이유가 건축법위반이라고 했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홍사룡 사장의 구속이 건축법이 아닌 정부에 비판적인 출판사들을 도와 준 이른바 '패썬 죄'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둘째 홍사회 사장의 영향도 있었지만 자주국방의 산실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던 중 구조 조정으로 연구소를 그만 둔 홍사룡 사장

역시 홍사회 사장에 못지 않게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이어서 광덕문화사에는 '창작과 비평', '한길사', '문학과 지성' 등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출판사들이 입주해 있었다.

“노동해방문학이란 잡지를 찍은 이후에 구속이 됐으니깐 구속 이유는 누가 봐도 건축법 위반이 아닌 패썬 죄가 확실했죠”

집행유해로 풀려난 이후 한영문화사는 상암동 시대를 열게됐다. 마포경찰서와 인접해 있던 공장이 경찰서의 부지 확장 계획지에 편입되면서 상암동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10여년 동안 계속되던 상암동 시대는 공장이 월드컵 경기장 부지로 결정되면서 지금의 고양시 장항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 83년 광덕문화사 시절부터 형을 도와온 셋째 홍사원 사장이 한영문화사에서 독립해 천일문화사를 설립하면서 광덕문화사 출신 삼형제들은 완전한 독립체계를 이루게 된다.

### 테니스, 등산으로 우위 다져

바쁜 와중에도 이들이 즐기는 운동은 테니스와 등산. 테니스의 경우 형(57)보다 젊음을 앞세운 홍사회 사장(55)의 선두권 유지 속에 셋째인 홍사원 사장이 최근 부쩍 늘어난 기량을 무기로 두 형에게 도전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테니스는 형제들만이 아닌 동서들도

즐기는 게임이어서 건강과 함께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는 데없이 좋은 운동이란 다.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넘어서 삼형제이지만 다들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영문화사 홍사룡 사장의 꿈은 인쇄 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기획이나 인쇄, 제본만이 아닌 인쇄주변시설까지 총 망라할 수 있는 종합인쇄타운을 건설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본분야에 매달리다 최근에는 인쇄업에 뛰어들어 홍사회 사장의 목표는 아무래도 인쇄 파트를 건설하자는 게 꿈이다.

천일문화사 홍사원 사장은 출판단지에 마련해 놓은 1천평의 땅에 오는 2월 20일부터 건평 1,080평의 건물을 짓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건물 신축과 입주가 홍사원 사장의 단기 목표이다.

삼형제의 자녀들이 모두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을지도 관심거리이다. 홍사룡 사장과 홍사원 사장이 각각 2남을 두고 홍사회 사장이 2녀를 둔 관계로 홍사회 사장의 가업 계승 여부가 관심거리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홍사회 사장의 맏딸이 인쇄사 경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3대에 이은 가업 계승과 인쇄 명가 건설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이용우 기자 <photoyw@print.or.kr>